

성주간 전례의 영성

이연학 요나 신부

I. 전례영성의 핵심적 강조점

미사전례 참석이 어떻게 하면 외적 의례의 의무적 준수가 아니고 깊은 기도 체험이요 영성생활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계시현장은 전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원천이요 정점, 10 항). 모든 전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모든 전례 참석은 곧바로 깊은 기도체험이 될 수 있다.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성주간 전례의 구체적 표지들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실 터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영성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전례일반의 영성에 대해, 그리고 성주간 특히 성삼일 전례의 영성에 대해. 이 교육은 교회 전통이 예로부터 ‘신비교육 *mystagogia*’이라고 일컬어 온 것으로, 렉시오 디비나와 함께 교회 영성의 불변의 두 축을 담당한다. 여기서 우선 공동체 전례의 ‘영성적 거행’을 위한 ‘비결’을 말해보자면 : 미리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로 준비한다는 것. 특히 성주간 같은 날들의 전례는 전례문 자체도 기도하며 묵상하며 거룩한 독서로 준비할 때, 공동체 전례는 영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체험될 수 있다. 아래에 전례 영성 일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몇 가지를 짚어본다.

1. “전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거룩한 독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로 고쳐쓸 수도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과 마찬가지로 전례를 몰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야 한다. 전례와 말씀은 그 태생에서부터 매우 깊은 상호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2. 공동체의 영성, 교회적 영성 : 하느님은 개인기도보다 전례기도(공동체의 모임)에 훨씬 더 강하게 현존하신다는 것이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확신이다. 유대교의 이른바 ‘민안’ 전통 즉 남자 열 명이 모이면 거기 바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기에 회당을 세울 수 있고 토라를 읽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보는 확신이 이 맥락에서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런 전통에 따라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마태 18,20)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이후 교회 전통도 “교회와 함께(혹은 교회가 되어) 생각하고 느낀다 *sentire cum ecclesia*”는 말로 이런 공동체적 영성을 표현해왔다.
3. “하느님의 일 *Opus Dei*” : 이는 교회 전통에서(특히 베네딕도 수도회 전통에서) ‘성무일도’와 동의어로 써 온 말인데, 전례 전체에도 해당되는 표현일 것이다. 이 ‘하느님의 일’이란 말을,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이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어 하시는 일”이란 뜻으로 알아들으면 전례 분위기는 영적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집전자건 참석자건 우리는 그분 활동의 통로 혹은 ‘미디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친히 그 때에 십자가에

서 바치셨던 희생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전례현장 7)

4. 하느님의 현존 앞에 현존하기 : ‘하느님의 일’을 이렇게 알아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례적 모임이 ‘우리가 전례에 모여든 것(congregatio)’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convocatio)’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전례거행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의 현존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삼가는 자세로 설 수 있게 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현존 앞에 비로소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 역시 현존할 수 있게 된다.
5. 지금 여기 : ‘현존(現存, Presence)’은 늘 ‘지금-여기’서만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늘 지금-여기 계시기에, 그런 그분의 현존에 다가가는 유일한 입구는 우리 역시 ‘지금-여기’ 깨어 현존하는 일이다. 이리하여 전례를 통해 파스카 사건은 2,000년 전 그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이 된다. 전례를 통해 우리는 파스카 사건과 같은 시간대에 살게 된다. 전례적 기억(Anamnesis)은 단지 옛 사건의 기억이나 기념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의 ‘실현-재현’(realization)이 된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늘 하느님 현존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분 현존의 심연으로 초대된다. 우리의 자격?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자격이다! 참회예절이 그래서 미사거행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다. “자비는 과거를 지우고 신뢰는 미래를 지운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느님의 현존 앞에 현존할 수 있게 된다.
6. 능동적 참여(Participatio actuosa, 전례현장 24) : 우리가 전례에 수동적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의 1~5의 과정을 통해서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참여’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면(1~5) 비로소 우리 역시 하느님의 이 ‘참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6~8).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참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례(=신비=나와 관계있는 사건, 내가 개입된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7. 위의 ‘참여’는 세상에 대한 관심(참여)으로 이어진다 : 말씀이 세상 현실에 ‘개입’하듯이, 전례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전례를 설명할 때 좀 더 상세히 보게 될 것이다.
8. 말씀의 여정 : 말씀은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살이 되고(예수 그리스도) 빵이 되어(성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쪼개지고 나누어진다. 장엄미사에서 입당 때 부제가 들고 온 성경이 제대 위에 놓이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미사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빵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바쳐지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리하여 미사에 잘 참여하면 우리 역시 ‘진정한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살아있는 제사(로마 12,1-2 참조)를 바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영과 진리로 바치는 예배’라 말씀하셨다(요한 4,24). ‘제대에 놓이는 성경’의 전례적 상징을 잘 알아들으면, 우리 역시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 신부의 성체거동처럼,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성 막시밀리안 콜베처럼, 알제리 티비린 수도원의 일곱 순교자들(영화 <신과 인간>)처럼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도록 초대받는다.

성주간 전례의 영성

성주간 전례는 일년 전체 전례와 그리스도교 신앙과 영성 자체의 핵심이다. 주일전례가 주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처럼, 성주간 특히 성삼일 전례(성목요일 ~ 부활성야)는 일년 전체의 전례에 심장부를 차지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처가 바로 주님의 파스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파스카 = 넘어감. 이집트 종살이에서 약속된 자유의 땅으로.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주일미사는 작은 부활미사요, 이런 주일미사의 출처가 바로 성삼일의 부활미사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수난-십자가’이다. 대림절이 준비하는 성탄대축일, 그 강생의 신비 역시 하나의 ‘수난’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서 하느님의 모습에서부터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을 취하신 사건이기에. 강생은 성삼일이 보여주는 본격적 수난의 전초전이요 준비다. 뿐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창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수난이다. 그 순간부터 인간의 자유를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 우주에 아로새겨진 하느님 사랑의 흔적이다. 나아가, 삼위일체 자체의 심장부에 십자가가 아로새겨져 있다. 아드님의 발출-탄생 자체가 성부의 ‘죽음’이다(H. U. von Balthasar). 각 위격의 ‘나’는 상대방의 자기 선사를 받아들여 너무 고맙고 충만해서 자기를 비우자 상대방의 얼굴이 자기 얼굴로 변화되는 데서 생긴다. 예수님의 ‘영광-빛’은 이리 해서 탄생된 아버지의 영광-빛이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삼위일체와 창조와 구원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이다. 신비 중의 신비다. 성삼일은 이 신비에 우리를 초대하고 참여하게 하여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하느님이 되게’까지 초대한다.

성지주일 : 성주간에 거행되는 신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운동’

나귀타신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에 대한 사람들의 악착같은 오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다. 하느님의 ‘낮선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 가장 낮선 생각도 받아들인다”(소화 데레사).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를 수 있단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한다. ‘사람 멀미’가 정상이듯, ‘하느님 멀미’도 정상이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선 하느님, 가장 이해 안되는 하느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다. 어리석고 무력한, 미친 것 같은 하느님에 관한 말씀을 일러 바오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 불렀다(1고린 1,18). ‘자기를 구하지 못하는 신’(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두고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에 관한 말씀이다.

나는 누구인가? 세 번의 수난 예고를 못알아들은 제자다. 메시아라며 성지까지를 들고 환호하다가 그가 나의 기대를 저버리자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고향치는 군중이다.

성지주일 전례의 두 모델 혹은 인도자 : 우도와 백인대장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것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 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가 23,42)

“이 분이야말로 의로운 분이셨다”(루가 23, 47의 백인대장이 ‘광경 theoria’ 앞에서). 바로 이 신앙고백과 이어지는 자기인식이 전 복음서와 수난복음의 기록 목적(“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II. 성삼일 : 사흘에 걸쳐 거행되는 파스카 전례

전례주년 전체에서 핵심 중의 핵심.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서 시작해서 성야미사에서 절정에 달하고 부활대축일 저녁기도에서 끝난다고 본다.

1. 주님의 만찬 미사 : 성삼일의 시작

기억-거행을 위한 예언적 선취(先就)의 전례동작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전례동작들은 하느님께서 곧 행하실 일-사건에 대한 예언적 선취(先就, 미리 보여줌)로 기능했다. 출애굽 때도 그랬거니와 (파스카 전례, 13,14: “뒤틀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주님의 출애굽인(루카 9,31) 파스카 그리고 최후 만찬(이때 제정하신 성체성사) 역시 그랬다. 곧 도래할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백성을 준비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 사건 이후에 백성이 이를 기억-기념-거행(anamnesis)하여, 그 사건에 담긴 ‘신비mysterium-sacramentum’가 백성 가운데서 영속적으로 실현(realization)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전례적으로 예언하시고 제정하신 파스카는 “주간 첫날”(루카 24,1.13)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만나면서 재현(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산 예배의 가장 훌륭한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희생 제사였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이 희생제사의 성사적 기억-기념(anamnesis)이다. 그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바치는 예배’(요한 4,24 참조)로써 주어진 말씀에 응답하는 일은(“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게 하소서” Jn17,17. <성경>은 직역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성찬에 충만하고 의식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성체성사를 일컬어 ‘성사중의 성사(Sacramentum sacramentorum)’라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Corpus Verum, Mandatum eucharisticum

이 날 전례와 독서 및 경문 강조점의 핵심(세족례에서 잘 보여주는 바) : 파스카

신비와 형제적 섬김 나눔의 실천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는 것인가에 있다. “나를 주님으로 스승으로 부른다면, 내가 했듯이 하라.” “누구든지 그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해주지 않은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중 가장 보잘것없고 고통받는 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 이를 알아듣고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다(마태 25장). 그리고 개인 기도를 포함한 우리 전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받아 모시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모시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성 아우구스티누스)

받아 모시는 바로 그것이 되기, 바로 이것이 ‘성체성사의 계명(mandatum eucharisticum)’이다. 다시 말해 성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성체의 축성은 나중에 감실 안에서 조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받아 모시는 바로 그 ‘성체’로 변모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대에서 축성되어 신비로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몸(Corpus mysticum)의 완성태는 그리스도의 진짜 몸(Corpus verum) 곧 교회의 친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작 교회야말로 성찬으로 탄생되고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미 말했듯이, “성찬이 교회를 만드는 것(Eucharistia facit ecclesiam)”이다.

정의를 요구하는 성찬

디다케는 성찬을 단순히 “klásma”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쪼개진 것”인데, 물론 쪼개진 빵(fractio panis의)을 뜻한다. 그러니까 성찬의 빵은 그냥 빵(‘실체-substantia’로서의 빵)’이 아니라 “쪼개진 빵” 다시 말해 타자를 위해 나누어지고 타자에게 향해지고 건네지는 빵, 관계의 빵을 뜻한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 1,27). 여기서 ‘신심’으로 번역된 *threskeia* 는 예배와 관계가 깊은 말이다. 즉 이 ‘신심’ 혹은 ‘경건심’(200 주년번역)은 독실한 예배를 바치는 이가 지니는 신심이다. 이를 감안하고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야고보 역시 구약 예언자들이 어찌면 지겹도록 얘기해 온 바, 다시 말해 예배나 제사의 진정성은 그 예배적 차원의 충실한 준수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의 성화 – 이 성화는 결국 이웃사랑이거니와 – 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 21-24. 기원전 700년대 전반) ;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호

세 6,6. 기원전 700년대 후반);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굳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 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 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 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이사 1,11-17. 700년대 후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숫양이면, 만 개의 기름 강이면 주님께서 기뻐 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어나려면 내 만아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현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가 6,6-8. 기원전 700년대 말);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예레 7,5-7. 기원전 600년대 말); “내가 좋아하는 단신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멍에 줄을 끌려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혈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이사 58,6-8. 기원전 500년대 말.)

바로 이 맥락에서 다시 바오로를 인용할 수 있다.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1 코린 11,22) 바오로가 성찬에 대해 전하는 11 장에서는 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몇몇 (아마도) 부유한 구성원들이 ‘**주님의 만찬(kyriakòn deipnon)**’에서 다른 형제들이 다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각기 자기의 만찬(idion deipnon)**을 미리 들면서(17,21. 200주년)” 취하기까지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주님의 만찬’ – 곧 성찬의 질(quality)은 유복한 이들의 ‘기다려주지 않음’(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오늘이나 과다한 노동량 때문에 교회 모임에 시간을 지키기 힘든 때가 있다), ‘함께 나누지 않음’, ‘가난한 이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아 치명적으로 변질되었고, 이를 바오로는 ‘자기의 만찬’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부유한 형제자매들이 자기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태도에서 당연히 무시당한다는 느낌, 모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다”),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멸시하는) 일”과 다름없다는 것이 바오로의(그리고 후대 교부들의) 관점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전례(성찬)는 가난한 그리스도의 전례, 혹은 “쪼개진 빵”, “나누어진 빵”의 윤리를 드러내는 전례일 수밖에 없다. 베네딕도 16 세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전례는 늘 함께 가야만 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전례다**”고 2008 년의 한 일반알현에서 말한 바 있다. 초세기 교회에서는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봉헌이 동일하고 유일한 봉헌의 행위였다. 그것은, 교우들이 바치는 것에서 공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부분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떼어놓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 성 금요일

교회 역사의 아주 초창기부터 이 날은 종일 단식을 하며 같은 맥락에서 미사를 거행하지 않았다. (성찬 대신 십자가 경배 - 이미 300 년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는 성 토요일까지 이어진다. 성 토요일엔 심지어 종도 안치고 모여서 하는 기도 역시 금하기도 했다. 오늘날 수도자들은 시간전례만 악기 사용없이 모여서 바친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구세주의 죽음 앞에 모든 감각적인 위로를 자제하려는 것이었다.

십자가, 의노를 보상하는 대속이라기보다 하느님 사랑의 징표

성 금요일 전례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신학(영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 날 전례는 상중에 있는 교회의 초상집 분위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살 이유(상상을 초월하는 사랑)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맞갖은 사랑으로 응답하려는 것을 도와주는 전례다. 구원을 위해 우리와 끝까지 입장이 같아지신(연대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전례다.

“부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행을 당해 한쪽 눈을 잃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왜 그렇게 슬퍼하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눈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덜 사랑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얼마 안 있어 그는 자기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나도 당신과 같이 되었소. 나도 이제 외눈이래요.”(J. M. Eckhart)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고(故) 신영복 선생의 얼음같이 맑고 서늘한 옥중서한 대목 하나는, 강생의 깊은 이치에 대한 직접적 주석처럼 들리지만 나아가 성 금요일인 오늘 비로소 완성되는 (나아가 성 토요일에서 극한지점까지 도달하는) 하느님 ‘연대’의 신비에 대한 놀랍고 아름다운 주석처럼 읽힐 수 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觀察) 보다는 애정(愛情)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連帶)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立場)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사랑의 최고 형태다. 신영복 선생은 다른 데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도 남기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강생의 깊은 이치에 관한 얘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른바 ‘연대(連帶, solidarity)’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용어 자체의 용례를 넘어 적어도 그 뜻으로 보자면, 성 토요일의 영성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신학-영성 용어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바로 이 사랑 앞에서 옛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는 말씀에 따라 적어도 이 날부터 가능하다면 부활성야미사까지 단식했다. 오늘에도 개인의 상태와 원의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영적 관습이 아닌가 한다.

‘넘겨짐(paradosis)’

성경에 아드님께서는 “넘겨지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paradidomi 동사는 넘겨준다, 내어준다, 건네준다, 선사한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 :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배신). 그리하여 아드님은 당신 적대자들에게 넘겨지신다(수동태). 그러나 그분은 지극한 자유로 스스로 이 ‘넘겨짐’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넘겨주신다(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 그리하여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넘겨드리신다(“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을 내어드립니다-맡깁니다). 창세 이전 무시로부터 아버지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아드님께 넘겨주셔서 아드님이 태어나셨고(성자의 신적 발출, Processio Divina), 아드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당신 자신을 다시 아버지께 넘겨드리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직통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을 넘겨주심으로써 아버지께 넘겨드리신 것이다.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던 것은, 오직 ‘사람의 형제’였기 때문이다! “숨을 넘겨주셨다.”(요한 19,30) 숨도, 물도, 가장 당신 안에 없을 때 넘겨주신 예수님이셨다(요한 19,28 + 19,34). 어쨌든, 이런 ‘넘겨짐’의 계보로 보자면, 유다와 유대 종교지도자, 군중, 빌라도 등의

‘넘겨줌’은 순서 상으로 겨우 세번째일 따름이다. 교회의 ‘전통(traditio-parádosis)’이란 말 역시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다! 우리 ‘성전’도 죽은 글자와 규정과 관습의 전승이 아니라 이런 ‘넘겨줌’의 ‘전등(傳燈)’이다.

없기에 있다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예수님...타자를 위해 자신은 물론 하느님마저 여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끼아라 루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순간 생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활짝 펴서 완전히 꽃잎이 열린 저 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 즉 인간적 죽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후, 마침내 자신의 영적 죽음 즉 신적인 죽음마저 선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선사하신다. 그분은 하느님마저 내려놓으신다.”

“주기 위해서는 잃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비우는 행위 *expropriatio*, 이것은 사랑의 행위로 종국에는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채웁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잃게 합니다. 그리고 잃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야만 자신을 줄 수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요, 잃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잃는 그것을, 하느님을 함께 누리도록 선사하고 계십니다.”(빠에로 꼬다)

성토요일 : 하느님의 연대

원래 전례가 없는 날. 성무일도만 바칠 뿐. 1베드 3,19 : “(수난에 대한 언급에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망부활’이라고 불린 이 날은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도께서 저승-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영혼들과도 ‘연대’하시며(지상의 우리 뿐만 아니라 지하의 그들과도) 해방을 선포하시는 날로 알려졌다. 금요일이 구세주의 죽음, 그 사건 자체의 현실성에 주목한다면(“그분은 죽었다”), 토요일은 이 죽음의 의미와 효력이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도 실제로 기능한다는 점에까지 묵상하고, 성 금요일에 벌어진 하느님 죽음의 의미를 마지막까지 밀어부치는 것(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현실을 마지막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한 이는 폰 발타사르 추기경이었다.

“그리스도의 ‘연민*compassio*’은 그분의 육체적 수난*passio*보다 한량없이 큰 것”(성 보나벤투라)이었으므로, “그분의 고통은 지옥벌에 처해진 이들의 고통과도 같았고, 그리하여 그분은 결국 지옥벌의 현장에까지 도달하셨다”(쿠사의 니콜라스 추기경). 그리하여 “(지옥의) 심연을 (구원의) 길로 변화시키셨다”(성 그레고리오 대종).

부활성야 : 없기에 있는 사랑, 없기에 있는 하느님 –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다. 죽음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물론 사랑 때문에) 죽음이 사랑의 품 안에서 녹아버렸다.

부활 성야 전례의 몇 가지 포인트 : 밤, 세례성사. 빛이 밤의 캄캄함에서 솟는다. 희망은 늘 절망에서 솟는다. (“함부로 희망을 이야기하지 마라, 절망을 모르고 어찌 희망을 알라!” – 성경의 인물들에게 정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성경은 결코 값싼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현실주의의 정직한 절망에서만 그치지도 않는다.) 죽어서 산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성야 전체 전례적 표지와 독서들의 주제.

그분이 저기서(십자가) 저렇게 진짜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내 안, 우리 가운데) 진짜로 살아계신다. 이 체험이 바로 파스카-부활 체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안에 생긴 체험이 바로 그것. 낮선 분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말씀의 기억, 말씀의 깨달음), 그러나 종국에는 빵을 떼주시는 동작에서(그분 한 평생의 요약인 전례적 동작일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다시 당신의 생명을 쫓겨 주시고 제자들의 삶에 동참-연대하시는 분의 체험) 그분을 알아뵈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즉시 일어나” 유턴을 하고,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 ‘참혹하도록 아름다운 첫 마음’의 지점이다.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한다. 그들 자신이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성야미사는 이런 체험의 원천이다.

죽을 이유를 이제 뚜렷이 지녔기에 비로소 살 이유도 지닌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들이다.